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정해*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밴쿠버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해있고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고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 내용은 어렵지 않았고 일본,태국에서 온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리스닝 시험으로 분반이 되었고 과제는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 이거나 영어일기 쓰기였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카약킹 - 수상스포츠이므로 여분의 옷, 수건을 챙겨야 합니다.</p> <p>디스커버 밴쿠버 -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닙니다. 편한 신발, 썬크림을 챙기면 좋습니다.</p> <p>휘슬러 트립 -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갑니다. 바람이 불면 추우니 따뜻한 겉옷을 챙겨야 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가 굉장히 좋고 햇빛이 강해서 썬크림이나 모자를 착용하는게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다운타운지역에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상한 사람이 가끔 보여서 피해야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시설은 나만의 방이 있어 굉장히 편했고 부모님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늦게 귀가 할 것 같으면 홈스테이 가정에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홈스테이에서 마련해주신 빵이나 시리얼,과일로 혼자서 먹고 점심은 준비해주십니다. 저녁은 주로 친구들과 관광하고 밖에서 사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운점이 없고 편합니다. 하지만 버나비나 리치몬드 지역으로 나갈 경우 추가비용을 내야합니다.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상관없습니다. 구글맵 어플을 이용하여 가고싶은 곳을 검색하면 어떤 버스를 타야하는지 다 나와서 어렵지 않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식비	500,000원	저녁을 많이 사먹었습니다. 물가가 비쌉니다.
기념품	100,000원	
합계	6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한국에서 유심을 구입해서 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데이터프리 미국/캐나다 데이터 무제한 사용하였고 21일에 6만1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광을 할때에 검색도 필요하고 길을 찾을때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겹옷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고 햇빛이 강해서 모자, 썬크림은 필수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권 국가에 처음 가보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프로그램 자체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은 많이 어렵지 않았고 그 보다 밴쿠버에서 얻은 경험들 덕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3주 동안 지내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보는 것도 많고 3주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4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를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3주 동안의 밴쿠버에서의 경험으로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험은 다른 학생들도 꼭 느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캐나다 플레이스</p>	<p>캐나다 플레이스</p>
	
<p>스탠리파크</p>	<p>휘슬러</p>
	
<p>휘슬러트립</p>	<p>홈스테이 가족</p>